

대출금리 8% 넘어서나...영끌·빚투족 '초비상'

한은 금리인상 시그널에 시장금리 들썩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 이미 7%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을 예고하면서 대출 차주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이미 상단이 연 7%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5년) 금리는 지난 29일 기준 연 4.26~7.10%로 집계됐다.

지난달 9일 기준 연 4.25~6.85% 대비 하단은 0.01%포인트, 상단은

0.2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일부 은행의 금리 하단은 연 5%를 넘어섰다.

한은의 올 하반기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뚫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은의 금리인상 시그널에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가 열린 지난 28일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992%로 전일 대비 0.042%포인트 상승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147%로 0.045%포인트 뛰었다.

주담대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연 4.280%로 0.042%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영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예전대 주담대 5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 4%에 빌린 차주의 경우 매월 약 238만원의 원리금을 갚으면 됐지만, 금리가 6%로 상승할 경우 매월 약 299만원으로 내야할 돈이 61만원 가량 불어나게 된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부터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먼저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은 이미 1900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조9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은 117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빚투'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마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63%로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단기(6개월) 금리도 지난 28일 기준 3.001%로 다시 3%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뛰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금리인상 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인상 횟수가 늘어날 경우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7월과 10월에 이어 내년 1월 금리인상을 전망한다"며 "올 하반기 중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최종 기준금리(3.25%) 대비 4.05%, 4.50% 수준까지 각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7월과 10월, 내년 1월과 4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AI 반도체 중심 성장세가 물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사이클이 더 빠르게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리인상 사이클이 예상보다

광주은행 영업점 134곳 '무더위쉼터' 운영

광주은행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지난달 2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쉼터는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전남과 수도권 지역 전체 영업점 134곳에서 운영한다. 수도권 금융센터와 프라이م 자산관리(Prime PB)센터는 제외된다.

무더위쉼터는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내달 18일부터 영업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부채도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광주은행이 2018년 은행권 처음으로 도입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선종은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앞으로도 지역민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권생물자원관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센터는 자원관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을 희망하는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겪는 제도적 불편이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이를 함께 개선해 나가는 전담 소통 창구다.

기업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온라인과 현장 상담 방식으로 병행 운영된다. 온라인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을 통해 상시 이용 가능하며, 현장 상담은 자원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자원관은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움부즈만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협전남본부, 청년 재능기부로 농촌 돌본다 /전남농협 제공

4월 생산·소비, 광주 '맑음' 전남 '흐림' 호남데이터청, 산업활동동향 발표...건설 동반 '폭증'

4월 광주는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며 안전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전남은 제조업과 내수 침체의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 수주액은 두 지역 모두 가동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호남데이터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2%, 출하는 2.9% 각각 증가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비를 뜻하는 대형소매점 판매 역시 백화점(8.7%)의 선전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2.0% 증가했다. 다만 대형마트 판매는 8.0% 감소하며 업태별 희비가 갈렸다.

반면 전남은 생산과 소비 모두 급감했다.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3% 감소했고 출하 역시 12.0% 줄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 또한 13.7%나 빠졌다.

미래 먹거리인 건설 수주에서는 두 지역 모두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광주는 192.1%, 전남은 224.3% 각각 폭증했다.

광주는 공공 부문(751.8%)과 토목 부문(846.6%)이 전체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그동안 침체했던 민간 부문(158.3%)과 건축 부문(155.8%)도 동반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른 호조를 보였다.

반면 전남의 건설 수주는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 부문이 40.0% 감소했으나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SOC) 및 플랜트 공사가 집중된 토목 부문이 무려 933.3% 폭증하면서 전체적인 수주 실적을 끌어올렸다.

연행안 기자

현대차 아틀라스, 월드컵 앞두고 기술력 과시

월드컵 경기 영상 학습한 아틀라스 "축구까지 배웠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축구 학습 영상에서 아틀라스가 패스 동작을 훈련하는 장면.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틱스 기술력 알리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쿨 오브 풋볼(School of Football)' 영상을 공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영상에는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역대 월드컵 경기 영상을 보며 선수들의 움직임과 자세를 학습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아틀라스가 승부차기를 하듯 공 앞으로 걸어가 슈팅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현장에서 아틀라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나 기술 시연에 나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이번 월드컵에서 아틀라스와 사족보형 로봇 '스팟(Spot)'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공개된 아틀라스의 기술 시연 영상도 월드컵 마케팅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달 유튜브를 통해 아틀라스가 23kg 냉장고를 안정적으로 들어 옮기는 영상을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양팔과 몸통을 활용해 무게를 분산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로봇틱스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에서는 2028년 미국에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대차와 기타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 등 로봇 2만5000대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링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현장에서 아틀라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나 기술 시연에 나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이번 월드컵에서 아틀라스와 사족보형 로봇 '스팟(Spot)'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공개된 아틀라스의 기술 시연 영상도 월드컵 마케팅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달 유튜브를 통해 아틀라스가 23kg 냉장고를 안정적으로 들어 옮기는 영상을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양팔과 몸통을 활용해 무게를 분산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로봇틱스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에서는 2028년 미국에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대차와 기타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 등 로봇 2만5000대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외인 삼성전자·하이닉스 매도 폭탄에도 30조 '줍줍'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수급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위해 40조원의 역대급 매물 폭탄을 쏟아내자 개인은 인공지능(AI) 업황 개선에 베풀며 약 30조원을 끌어모으는 등 온몸으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삼성전자를 16조4976억원, SK하이닉스를 24조3593억원 순매도했다. 두 종목에 서만 총 40조7439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들은 SK하이닉스 19조6834억원, 삼성전자 9조7985억원 등 총 29조481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미들은 외인의 물량을 거침없이 받아내며 치열한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규모의 매도 폭탄을 받아내는 이유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두 반도체 기업의 실적 성장이 보장된다는 확신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동반 진입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27일 기준)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광양만권경자청, 방산 전문기업 (주)드피에스와 투자협약

방산 전원공급체계 선도기업, 해룡산단 입주 협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순천시 소재 방산 전문기업 (주)드피에스와 해룡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주)드피에스는 해룡일반산업단지 내 신규 부지를 확보해 약 300억 원을 투입, 방산용 연구자석 발전기 및 전원공급체계 전문 생산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한화시스템이 수주한 L-SAM 다기능 레이더용 주전원공급 유닛 양산 사업 계약을 이미 확보한 만큼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서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장 가동 이후 단계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주)드피에스는 2014년 ㈜엔테크 방산연구개발 부서로 출발해 2020년 방산발전기 전문기업으로 분사한 기업으로, 연구자석 발전기 기술을 군용 무기체계에 특화·적용한 국내 대표 중소 방산기업이다.

국내 방위산업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K-방산 수출 확대를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 역시 방위산업 중소기업 유치를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청은 이번 협약을 발

판으로 광양만권 산업단지 내 방산 기업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 등 대형 방산기업과의 1차 협력사 관계를 보유한 우량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주)드피에스는 연말까지 해룡산단 내 공장 착공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연간 매출 약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충근 광양만권경제자청장은 "실증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갖춘 (주)드피에스가 해룡산단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지역 방산 공급망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농어촌공사, 전남 배수펌프장 166곳 점검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 체계 강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아줄 배수펌프장 점검을 마쳤다.

28일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관리 중인 배수펌프장 166곳에 대한 긴급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접수한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상황' 가장 재난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했다.

실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부터 현장 출동, 시설 가동

까지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훈련 메시지가 접수되자 전남본부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각 배수장 책임자는 현장으로 출동해 배수펌프와 수문 등 주요 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펌프를 가동하며 비상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실시간 협조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시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기자

한전, 배전망제도 쉽게 풀어낸 해설서 발간

배전망 접속 절차 등 이용자 관점으로 재구성

한국전력공사가 2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배전망관리방침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전망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첫 공식 해설서를 공개했다.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과 배전망관리방침 해설서 제작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위원회에서는 배전망 관리방침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방향을 모색했다.

한전은 이날 위원회에서 복잡한 배전망 제도와 이용 절차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배전망관리방침 해설서를 최초 공개했다.

해설서는 ▲배전망 접속 절차 ▲기술검토 및 접속공사비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핵심 내용이 이용자 관점에서 단계별로 재구성됐다.

해설서는 '한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배전망관리방침 위원회 위원장)은 "배전망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번 해설서가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자